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10.(화)

농촌진흥청, 농식품부산물로 사료비 줄인 한우농가 방문

- 축산원 11월 10일 강원 횡성 우용농장 찾아 시범사업 성과 확인
- 농식품부산물 활용 사료 급여로 사료비 30% 절감·출하체중 향상
- 겨울철 한파 대비 사육 관리와 축사 안전점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11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용농장을 방문해 농식품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비 절감 성과를 확인하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사육 관리를 당부했다.

한우 416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은 2024년 '농식품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품질 고급화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농식품부산물을 활용한 섬유질배합사료(TMR)를 먹이고 전문가의 맞춤형 기술 지도를 받으며 사육 관리를 개선해 왔다.

그 결과, 경산우(새끼를 낳은 암소) 평균 도체중은 30kg 늘고, 사료비는 30% 줄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거세한 수소에도 섬유질배합사료를 먹이고 있다.

우용농장 정하교 대표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료비를 줄이고 출하 성적을 높이는 효과를 체감했다."라며, "앞으로도 농장에 필요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송아지 보온시설과 축사 바람막이를 점검하고, 급수시설이 얼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질의 풀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겨울철 사육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성과가 더 많은 농가로 이어지도록 기술지원과 보급을 강화하겠다.”라며, “폭설에 대비해 축사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보온등과 전열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 예방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라고 말했다.

붙임. 시범농가 현장 방문 개요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소영 (063-238-7200)
		담당자	연구사	김창한 (063-238-7211)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붙임 **시범농가 현장 방문 개요**

□ 개 요

○ 일 시: 2026. 11. 10. 15:20~16:00

○ 장 소: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로 130

○ 내 용: 시범 추진 점검, 기술지원, 의견청취 등

○ 일 정 표

시 간 / 분	내 용	비 고
<11.10.(화)> 13:20 ~ 15:20 (120)	이 동(수원 → 횡성) * 농장주소: 횡성군 둔내면 우용로 130	
15:20 ~ 16:00 (40)	◦**농장 방문** * 농식품부산물 활용 경산우 비육 품질고급화 시범 적용 성과 확인, 의견 청취, 겨울철 안전관리 당부	